

詩的 문체로 그려진 흑인의 고통

앙드레 슈발츠-바르트의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

각자가 꿈꾸는 삶의 모습대로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내일을 전망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한다.

어쩌면 모든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거대한 늪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피부색의 차이를 이유로 인간이 한갓 애완 동물보다도 못한 위치로 전락했었던 과거 역사속의 주인공들에게는 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앙드레 슈발츠-바르트의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밝은책)은 인간이 간직해온 역사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흑인 노예제도 시대의 이야기를, 감정을 배제하고 짧은 이야기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우선 시선을 끌기에 족하다. 흑인 노예시대의 역사는 수없이 영상화되고 여러 예술 분야에 소재로 사용되어 독자들에게 결코 낯선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소설에서 또다른 감동을 받는 이유는 통속적 호기심이나 선부른 감상, 혹은 정형화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작품이 아니라는 데 그 까닭이 있다.

저자의 서술 방법이 지극히 객관적일 때 독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무한히 유추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쉽게 생각하면 “과거엔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단순한 테마일 수 있는 이야기를 작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역사속의 인물을 그려감으로써 오히려 강한 감동을 창출해내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의 태출이라는 암흑의 광활한 터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여인 바양구마이가 노예선에 실려 백인의 땅에 끌려간 뒤 낯게 된 혼혈 여인 쏘리뫼드의 단두대에 오르기 전까지 경

험하는 온갖 걱정과 삶의 바탕으로, 그 당시 행해졌던 백인들의 만행과 흑인들의 의식을 엮어 놓은 것이 이 소설의 주 골격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바양구마이와 쏘리뫼드의 삶의 대응 방식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우리의 존재방법에 대한 탐색작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삶에 굴레로 씌워진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 생활의 향상은 없었을 것이며 역사의 진보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쩌면 국한된 여성 개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축소될 수 있는 이 소설 속의 쏘리뫼드가 걸어간 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온갖 억압과 굴욕, 소외로 가득한 모순의 사회에서 그녀가 그것을 파헤치고 폭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싸움에 기꺼이 몸을 바쳤다는 점 때문이다.

아무런 할 일도 찾지 못하여 존재 자체에 대해 구토나 해대는 사람에게 이 책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 앞에 놓인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좋은 지침서라 생각된다.

이경희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마송리 111번지

「이 한장의 명반」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듣고 있노라면, 같은 이름의 소설 속에 그려져 있던 애잔한 사랑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창 이 노래에 취해 있던 여고시절로 되돌아가 그때의 감흥에 젖어 절로 기꺼울 때도 있

다. 이렇듯 기억에 내장되어 있는 한 소설의 노래가락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충실히 이어주기도 하고-혹시 모르지 않는가? 갓난 아기 때 익숙하게 들던 자장가까지 기억의 꼬투리에서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 지나쳐 버린 시간들을 몽땅 기억해낼 수 있을지도-현재상황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주기도 할 뿐 아니라 미래의 여유를 가져다주기도 하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배운 신의 선물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음악, 곧 나의 취향에 맞아떨어지는 음악을 선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가까스로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게으른 속성은 아무래도 지름길을 찾게 되고, 괜찮은 안내서라도 하나 얻고 싶어진다. 이런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책이 하나 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가 음악의 전문가나 비평가적 입장이 아니라 단지 순수한 음악의 애호가적 입장에서 저술한 「이 한 장의 명반」(玄峯社)이 그것으로, 저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음악안내를 하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저자가 소장하고 그 명반에 깃들여 있는 저자의 추억과 함께 명반의 구입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제2부에서는 음악사에 남을 거장들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고전음악감상을 취미로 하거나 또는 할 사람들을 위한 다소 자세한 안내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에

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자 스스로가 규정하듯 저자는 순수한 애호가일 뿐 전문가는 아닐 뿐더러 더욱이 전문적인 저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베토벤의 월광소나타가 잔잔히 흐르고 있는 고즈넉한 저녁 무렵에 편히 앉아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은 분명 여유로와 보이는 정경이다. 단지 우리에의 전통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안타깝다. 「이 한 장의 명반」에도 우리네의 가락은 제외되어 있음을 덧붙인다.

김경순

서울 서초구 잠원동 25-28 · 회사원

「은마는 오지 않는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책을 즐겨 사는 편이 못되는 내가 안 정효의 이 책을 선택 사보았던 것은 「하얀 전쟁」에서 받았던 압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통해 숨을 멈추고 읽어야 했던 전편에 비해 「은마는 오지 않는다」(고려원)는 시종일관 느슨하게, 몇번쯤 책을 놓기도 하면서 쉬엄쉬엄 읽혀졌다.

「은마...」의 무대는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전쟁이 그들의 현실은 아닌,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황노인의 거부장적 권위로 북중하면서 마을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전쟁의 열기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엄청난 변화에 당황하고 술렁대기 시작한다. 물론 이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 이데올로기 전쟁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치열하게 전개되는 전쟁은 마을 여인 ‘은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레'와 황노인으로 대표되는 마을 사람들간의 싸움이다. 그 하부에서 만식이와 마을 아이들 이 보여주는 갈등과 싸움은-어른들의 것 못 지않게 진지하고 격렬하다.

언레는 부당하게도 타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밀려 들어간다. 마을 어귀에 있던 그녀의 집에서 미군병사들에게 겁탈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운했던 사건은 그녀를 고립시키게 된다.

언레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운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마모시키고 황폐화하는 데 반해, 언레는 곳곳 하계도 삶 자체에 도전하고 버텨내고 있다. 이 작품이 완전한 몰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주인공 언레의 지나치게 지적인 발언들 때문이었다. 또한 만식의 아이답지 않은 진지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로 이에 한몫을 한다.

고향을 떠나는 만식모자의 달관된 모습을 보면 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험한 생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도 믿지 않다'는 만식의 깨달음은 소설의 바람직한 결론일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와서 박히고 수궁케 하는 현실적 결론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정자

경기도 부천시 심곡 1동 806-9 · 주부

「경마장 가는 길」

한권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상상력의 소산인가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일반적인 독자

에게는 그다지 어색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이 수준이 낮은 독자에게서 흔히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 작품이 허구이건 아니건 책을 구입하여 읽어내려간 독자에게 그것이 타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선 동일할 것이며 또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외적 관심은 독서를 좀더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단순히 '있을 법한 허구'라기 보다는 '있었던 이야기'로 받아들임으로써 문학작품이 가지는 감동에 덧붙여 '사실'이 주는 감정이입의 매력을 맛보게 해주는 때문인 것이다.

「경마장 가는 길」(민음사)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이 책은 단숨에 읽어내려 가기에는 어려운 분량(600여 페이지)이고 또 가볍게 장을 넘기기 어려운 독특한 문체로 쓰여져 있으면서도 한자리에서 독과해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작가의 시점에 있다. 작가는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고 결코 넘겨 짚지도 않는다. 등장인물의 대사에도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 인물이 '분노했다'고 쓰는 대신에 그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하는 것이다. 냉정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들을 지켜봄으로써 독자들은 소설읽기가 상당부분 진행된 후에야 어렵사리 인물들의 현실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 R이 타인들과 자신까지도 허구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R과 R의 아내, R과 J의 끊임없는 반복적 대화들은 대화의 저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공감대 없기에 의미해독이 불가능한 공

명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반복 기술됨으로써 독자들은 숨이 막히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분노를 삭이느라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된다. 이렇듯 꼼꼼한 반복 기술 때문에 독자들은 작품 속의 상황과 괴로움 속으로 쉽게 몰입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5개월 여에 걸친 R의 방황과 고통은 '경마장'이라는 어떤 공간에 이르도록 그에게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서울에는 정녕 갈 곳이 없다'는 외침에 공감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은 결코 경마장으로 안내해주지 못한다.

나영옥

서울 동대문구 청량 2동 580번지 2동 7반 · 회사원

「서울 잡학 사전」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주된 공간으로 이용되어왔던 서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왔다. 혹자는 개발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발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예 자연의 피폐라고도 하면서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다소 둔화된 듯해서 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단위로 거슬러올라가기 시작해서 대역섯 손가락을 꼽기 시작하면 서부터의 서울의 모습이란 도무지 아리송할 뿐이다. 몇장의 빛바랜 옛날의 흑백사진을 보면서 그 옛 서울의 옛 모습이라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지도 않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서울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1990년대 전후인 개화기의 서

울풍속도를 재현하고자 자신의 체험이 실린 기억을 죄다 끄집어내고 조사해서 수집한, 사진과 함께 서술한 책이 선을 보여 주목된다.

趙豊衍(1914년 서울 출생) 著 「서울 잡학 사전」(정동출판사)은 조선 시대 말기에서부터 일제시대 초기 전후에 걸쳐서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풍속이나 생활 풍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1장 '서울의 전통 풍물'에서는 두루마기, 요령, 소박, 상투, 슈샤인 메신서 등과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풍속들을 열거하고, 제2장 '서울의 역사'에서는 고무신, 메리아스, 양화점의 등장에서부터 화신백화점, 은행의 출현까지를 소개하고, 제3장 '서울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쇼의 원조라든가 영화관람료, 연쇄극, 연속사진 등과 같은 문화면의 모습을 재현한다. 제4장 '서울의 풍수지리'는 서울의 터에 대한 설명과 유서 깊은 건물들의 되짚음이 있고, 제5장 '서울의 세시 풍속'은 동지와 팔죽, 복술, 책씻이 등과 같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꼭 지켜졌던 풍속들을, 제6장에서는 서울의 이름난 음식들과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먹을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편집자는 제한된 자료들로 인해 단편적인 편견의 나열에 그칠 것을 염려하면서 책을 묶어냈지만, 1900년대 전후와 유관한 세대들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그 당시를 이만큼이나 살려서 그려낼 수 있었던 기획 동기와 그 결과는 주목받을 만하다.

이승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 2동 691-8호 효성 라동 301호 · 주부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

출판·편집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디자인 회사,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지닌 감성구조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출판디자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4-4 용우빌딩302호

TEL : 268-2327 ~ 8, FAX : 268-2329

出版企劃

〈번역·집필〉

《全分野·全種別》

- 영·독·불·일·러시아어 번역
- 한·중 출판정보학회
- 한·중 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 黃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 기획실장·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전화 : 645-7052

없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오자없는 회사
원숙한 타이핑과 정확한 교정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회사.

한백디자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제 수정자 한 두 자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지체하거나 사식집을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PC로 입력된 원고도 완벽하게 작업해 드립니다.



전산조판에서 출판까지

한백디자인그룹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2 금성빌딩 403호
TEL : 568-0757 FAX : 568-0757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5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4,0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